

박대통령-김한길 대표 새해 첫 만남서 ‘뼈있는 대화’

박 “국정운영 늦춰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”

김 “기초선거 공천 폐지, 與에 제대로 말씀해 주시죠”

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정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만나 가시 둘친 대화를 주고 받았다.

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6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3차 회동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함께 정국 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약 네 달 만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각자 인사말에서 ‘뼈 있는’ 발언을 했다.

박 대통령은 “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모두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”고 말했다. 박 대통령은 또 “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국민의 삶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막대한 임무가 있으신 분들”이라며 “정부와 함께 국민께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

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.

김 대표도 자신의 차례가 오자 A4 용지에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작성한 듯 읽어내려갔다. 김 대표는 “돌아보면 2013년 한해는 여러 가지로 힘든 한해였다.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사회·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민생이 고단했다. 정치는 실종된 한 해였다”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. 이어 “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”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후퇴논란을 빚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.

김 대표는 헤드레이블에서 대화 도중에도 박 대통령에게 “이 자리에 여당 대표도 함께 계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”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,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천



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'2014년 신년인사회'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덕담을 경청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폐지를 결정했는데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에 제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쪽을 바라보면서 “잘해보세요”라고 화답했다. 김 대표는 “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뒤 청와대에 처음 오셨다”라고 취재진이 관심을 보인

데 김기준 청와대 비서실장은 덕담을 주고받는 등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. 김 대표는 김기준 청와대 비서실장이 “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”고 환영하자 “별 말씀을… 고맙다”고 화답했다. 김 대표는 “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뒤 청와대에 처음 오셨다”라고 취재진이 관심을 보인

데 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”면서 활 대표를 향해 “안 그렇습니까?”라고 물었고, 활 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했다.

이날 신년간담회에는 국회 상임위 의장단도 참석 대상이었으나 8명의 민주당 상임위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만 참석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새정주, 윤여준 전 장관 영입

공동 위원장에 임명… 조만간 추가 인선 계획도 밝혀

윤장현·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5·18묘지 참배

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‘새정치추진위원회’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. 새정주는 이날 오전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장관 영입과 공동위원회에 임명을 밝혔다.

안 의원은 회견에서 “지금 저희에게는 경륜과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는데, 윤 전 장관은 한국 정치 현장을 두루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”고 소개했다.

윤 전 장관은 안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정치적 멘토로 알려졌으나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이 “윤 전 장관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·김여진 씨 등 300명쯤 된다”고 언급한 후



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(가운데)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(오른쪽 세 번째)이 5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회에 임명됐다.

/연합뉴스

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.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맡기도 했다.

이날 회견에서 윤 전 장관은 “양대 정당의 지속 대결이 이 땅을 둘로 나누는 분열의 정치를 불러왔다”고 생각한다”며 “이렇게 보면 안철수의 등장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역사적 명령이라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힘을 보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”고 덧붙였다.

새정주는 조만간 추가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.

한편, 새정주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지자체들과 함께 국립 5·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.

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전 청당 가능성이 대해 “개인적 생각으로 당연히

이날 참배에는 안 의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‘정책네트워크 내일’의 광주·전남 실행위원들과 향후 청당될 ‘안철수 신당’에 합류할 예정인 인사와 지지자들이 참석했다.

윤 위원장은 이날 5·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“광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가 새 정치의 큰 뜻으로 하나 되어 국민통합과 상생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시민들의 기대와 바람

을 제대로 받아들여 할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 진정한 광주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다짐했다.

윤 위원장은 또 4일 민주당 탈당 지방의원 및 새정치포럼 등 광주·전남 3개의 ‘안 신당’ 지지단체와 협동 참배와 신년하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섰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신축원룸전문(전대1분)

★전대상대 1분

등기완료, 공실없음 월수의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, 전면내리석 벽돌시공

매가 6억3천 (보증금 3천, 움 1억)

★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

신축 4층 룸 19개(1층 상가, 4층 주택)

월수의 850만(1년 1억원 수익) **매가 12억** (움 3억, 보 1억)

전대정문원룸

룸 15개 월수의 500, 매가 6억3

전대예술대2분 코너앞

룸 13개 (4층 고급주택 40평 1개) **매가 7억8천**

즉시입주가능 최고위치 월수의 455만원(4층주택 사용가)

★수완지구상가

1층매매(17.5평) 3억5천 1층임대 (18평) 보2천 월110만

3층매매(85평) 3억2천 모아엘가 상가 3층

3층매매(62평) 2억8천 세계로 병원 대로면

상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/13평 매4500

신한공인증개사 ☎ 010-6670-9800

경매전문

경매 투자 하실 분!

(공동투자 가능)

(상가, APT, 원룸, 토지, 균생, 기타)

권리분석·입찰 매매·임대·자금

처음부터 끝까지

컨설팅 해드립니다.

◎경매 직원 구함◎

기죽처럼 함께 하실 분

주)대신경매 ☎ 062-527-7600

[국내개발, 국내생산] 특허 제10-2013-0103125

삼각쿠션의 무릎관절 하중부담 경감과 무릎보호역할

삼각쿠션과 방식의자 일체형디자인 몸에 딱 맞기는 인체공학적 구조로 편안함

허리벨트형으로 편안한 착용감

MBC NEWS '무릎경쟁 더하세요'

MBC NEWS '발일 할 때 무릎에 체중 7배 전해져'

"MBC 뉴스데스크", "MBC 이브닝 뉴스" 방영

쪼그리고 일 할 땐

역시 쪼그리

무릎통증 예방

쪼그리 착용이 필요할 때

▣ 쪼그리고 밭일 작업 시

▣ 쪼그리고 하우스 작업할 시

▣ 쪼그리고 산업체 용접 또는 조립작업 시

▣ 쪼그리고 레저 등 낚시 할 때

▣ 쪼그리고 농식품 가공 작업 시

▣ 쪼그리고하는 그 외 모든 작업 시

제작 판매 (주)에인류 [본사대표전화] 062-652-2587 Gmarket 과 AUCTION 에서 "쪼그리" 판매

[판매처] 광주전남총판 희청코퍼레이션 062-603-1801 [판매처] 전국의 농민의국, 철물점, 농자재판매점 등